한국문학논총 제68집(2014. 12) 291~313쪽

김구용 시의 무장소성 연구

이 수 명*

차 례

Ⅰ. 머리말
Ⅱ. 장소성과 무장소성
Ⅲ. 김구용 시의 무장소성
1. 전쟁과 장소의 파괴
2. 상품화된 성과 부조리한 장소
3. 획일화된 도시와 장소 상실
4.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Ⅳ.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세기 말에 발전한 담론인 장소 개념에 입각해 김구용 시를 분석한 것이다. 추상적인 공간에 인간의 실천이 가미되어 삶의 내용과 의미가 실릴 때 장소가 된다는 장소론은 장소성이나 장소 정체성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거주의 경험에 의해 장소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가 생길 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장소성이 불가능해지고 장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무장소성이 등장하게 된다. 장소의 상실이라고도 불리는 무장소성은 다양한 원인과 양상으로 전개된다. 김구용의 산문시는 특유의 산문성으로 인해 서사적 공간 설정이

* 중앙대학교 강사

많은데, 대부분이 전통적 장소성보다는 무장소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김구용 시의 무장소성의 양상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혼란이 보여주는 장소의 파괴, 상품화된 성이 모든 장소를 침범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조리한 장소화, 그리고 문명화, 획일화되는 도시에서의 장소 상실감과 이동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진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등이다. 김구용 시의 무장소성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대적 삶과 사유를 해명하는 유효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공간, 장소, 장소성, 장소 정체성, 무장소성, 장소의 파괴, 부조리한 장소, 장소 상실, 장소의 일시성

Ⅰ. 머리말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1] 김구용

1) 지금까지의 김구용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김구용의 전체 시 세계를 다룬 논문들. 박선영, 「김구용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5. 장인수, 「한국초현실주의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6. 민명자, 「김구용 시 연구-시의 유형과 상상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07. 이숙예, 「김구용 시 연구-타자와 주체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7. 유정이, 「한국전후 모더니즘 시 연구-신동문, 전봉건, 김구용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8. ② 김구용의 전반적인 시세계를 다룬 논문들. 박선영, 「김구용 시의 입체성」, 『비평문학』, 2004.6. 민명자, 「김구용의 산문시 고찰」, 『어문연구』 49집, 2005.12. 이수명, 「김구용 전쟁시에서의 절대적 타자」,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7.12. 김양희, 「김구용 시 연구-1950년대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5집, 2009.8. ③ 김구용 시 텍스트의 형성에 대한 논문들. 민명자, 「김구용 시의 개작과정 연구」, 『인문학연구』36(1), 2009.4. 「김구용 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李箱 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7(1),

시 세계는 아직도 미답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형식과 구성 면에서, 수사와 미학적 층위에서, 문학사적인 영향 관계에서 그의 시에 대한 조명은 아직 출발선 상에 있다. 우선 시 한편 한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뿐 아니라 작품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길이와 주제 면에서 압도적인 장시들을 비롯하여 시집 『시(詩)』에 수록되어 있는 난해한 산문시들에 유의미한 문학적 방법론을 원용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학문적 성과들을 도용하는 비평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공통의 중요한 관심이면서, 20세기 말에 이르러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한 담론인 장소 개념의 변화에 입각해 김구용의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는 얼핏 시간의 대비를 이루는 공간과 비슷하게 여겨지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소는 place로, 공간은 space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소와 공간 개념의 구분은 이푸 투안(Yi-Fu Tuan)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그에 의하면 "공간은 장소보다 더욱 추상적이다. 분화되지 않은 공간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장소가 된다."[2] 즉 "공간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느껴질 때 장소가 된다."[3] 이렇게 공간에서 장소로의 변화라는 과정과, 한편 도시화와 더불어 가속

2010.4. 장인수, 「일기를 통해 본 김구용 문학의 형성 과정」, 『반교어문연구』35집, 2013.8. ④ 김구용의 특정 시 한 편을 분석한 논문들. 지금까지는 <소인>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다. 박동숙, 「金丘庸의 텍스트 <消印>에 생성된 욕망의 系列化 양상」, 『어문연구』39(1), 2011.3. 송승환, 「김구용 산문시 연구 1- <소인(消印)>(1957)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2012.12. 이수명, 「김구용의 <소인(消印)>에 나타난 수금의식(囚禁意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3.3. 김양희, 「김구용 시의 환상성 연구 - <소인消印>(1957) 연구」, 『한국언어문화』52집, 2013.12. 그리고, <소인> 외에는 박찬일, 「서로 다른 것의 공존, 혹은 분열 - 김구용의 <반수신의 독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19집, 2008.6. 이수명, 「김구용의 <꿈의 이상(理想)>에 나타난 불교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3.12.

2) Yi-Fu Tuan, 정영철 옮김,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 1995, 10쪽.

3) Yi-Fu Tuan, 위의 책, 92쪽.

화되고 있는 장소의 상실에 대한 논의는 현대와 현대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김구용의 시집 『시(詩)』가 주로 씌어진 50년대는 전쟁과 파괴, 이의 재건에 이르는 사회적 혼란과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이다. 『시(詩)』에는 50년대 특유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잘 녹아 있다. 그러므로 『시(詩)』에서 사회적 배경을 이루는 많은 장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김구용의 시를 이해하고 작품 세계를 구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구용 시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 공간 개념에 입각한 글이 있다. 박선영은 50년대의 서울을 근대 도시로 보고 『시(詩)』에 나타난 근대 공간성을 살펴보고 있다.[4] 그의 연구는 전후의 폐허 하에서의 공간 구성 방식이 주체의 내면을 형성하는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은 시집 『시』를 중심으로, 박선영의 근대 공간 연구를 현대적 담론 개념인 장소론으로 발전시켜 분석하고 여기서 나아가 장소의 상실, 즉 무장소의 개념에 입각해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Ⅱ. 장소성과 무장소성

공간이나 장소와 같은 요소들은 단지 인간과 삶의 물리적인 배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조건이요, 전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

4) 박선영, 「김구용 시에 나타난 근대 공간성 연구 — 시집 『시(詩)』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013.3. 그리고 김구용 연구는 아니지만 장소 개념을 도입하여 시적 방법론으로 삼은 송명희의 글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만 송명희의 글은 산업화, 도시화와 다소 거리가 있는 장소 개념이라 접근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송명희, 「이상화 시의 장소와 장소 상실」, 『한국시학연구』 23집, 2008.12. 「김광섭 후기 시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와 생태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32집, 2011.12.

이르러서이다. “공간은 생산물이다”[5]라고 선언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를 위시하여 이 시기에 이르러 소위 ‘공간의 시대’라 할 만한 공간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공간의 양상과 진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공간에서 발전된 장소 개념이 담론의 중심이 되기에 이르렀다.

공간과 장소 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체험의 의미가 가미된 실천적 요소다. 즉 이푸 투안이나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같은 논자들은 “후면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공간의 영역이 전면의 현실성이라는 장소의 영역으로 변환되는 과정에는 해당 공간을 장소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의 경험과 문화적 규칙이 작동”[6]한다고 생각했다. 즉 “추상적이며 삶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엮여 있지 않은 공간이, 사람들의 의미 부여와 실천으로 인해 장소로 변형되는 것”[7]이다. 이렇게 공간에서 장소로의 변형을 통해 인간은 삶의 진정성, 의미를 구현하게 된다.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인간적 내용을 가진 실제적 차원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간의 위협, 개방, 자유”와 “장소의 안전과 안정성”[8]을 대비적으로 생각했던 이푸 투안에서 논의는 머무르지 않는다. 장소 개념은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소가 장소의 의미를 잃고 장소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한다. 장소성이 이른바 무장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렐프는 그의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이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는 산업화 시대 이전의 수공업적인 문화의 특징이 소멸되면서 후기

---

5) Henri Lefebvre,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1쪽.
6)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의 등장」, 『비교문화연구』19집 1호, 2013, 114쪽.
7) 정헌목, 위의 글, 114쪽.
8) Yi-Fu Tuan, 위의 책, 11쪽.

산업사회에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획일화가 진행되어 장소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본다. 집이나 공동체와 같은 의미 있는 장소 경험이 빈약해지고 이제는 장소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진정하지 못한 경험에서 장소는 유용성의 측면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선험적 모델이나 인습적 사고와 행위를 통해서만 보여진다."[9] 다시 말하면 장소라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기능이나 인습, 기획의 산물로 제공되는 것이다. 내부적, 실존적인 장소성은 소멸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장소 상실이나 무장소, 비장소[10], 탈장소, 반장소적인 상황이 상시화된다고 할 수 있다.

무장소 개념은 현대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지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이것은 자신의 장소를 가지며 그 장소를 잘 알고 그곳에서 안정을 느끼는 전통적인 삶과 감각의 구조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무장소성은 장소의 무의미성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장소 상실로 인한 현대인의 황폐한 감각과 정신의 구조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김구용의 장시들을 비롯하여 많은 산문시들은 무장소성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1950년대에 쓰여진 그의 시들을 그 이후 발전한 담론인 무장소성에 의해 조명하려는 것은 김구용의 시가 이 현대적 담론의 렌즈를 통해 갖게 되는 의미 때문이다. 그동안 김구용 시의 내용면에서의 연구는 주로 세 가지 방향 즉, 실존적 현실과 자의식, 불교적 세계관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불교적 세계관이 확장된『구곡』,『송백

9) Edward Relph,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82쪽.

10) 학자들마다 어휘 사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마르크 오제는 비장소(non-place)를 개념화한다. 그에 의하면 비장소는 대형 쇼핑몰이나 현대식 주거단지,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장소가 아닌 지점들을 말한다. Marc Augé,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by J. Howe, London & New York:: Verso, 1995. 정헌목, 앞의 논문, 111쪽에서 재인용.

팔』, 『구거』이전에 쓰여진 『시』는 전쟁의 참화와 실존의식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현실의 중압과 김구용 특유의 과도한 자의식을 연결시켜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한쪽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11] 본 논문은 『시』로 대표되는 50년대 김구용의 시에 나타난 실존적 현실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구체적인 장소성을 통해 실증화하고, 이로써 김구용의 시의 자의식의 험로가 장소의 상실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전쟁의 현실과 자의식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독법을 극복하고 그의 시를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Ⅲ. 김구용 시의 무장소성

1. 전쟁과 장소의 파괴

50년대 김구용의 시에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전쟁이 휩쓸고 간 흔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곳곳에 눈에 띄게 부서진 건물이나 잔해가 등장하며, 거의 모든 시에 폐허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의 시에서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시인들에게서처럼 전쟁이 배경으로 나타나는 아니라, 뚜렷하게 실존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은 생존의 전체이며 인간은 그에 지배되고 왜곡되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것이 김구용의 시의 근간이랄 수 있는데, 시적 주체의 내면은 이러한 현실에 항시 결박되어 있다. 난해하고 복잡한 자의식도 다층적으로 전쟁과 연결되

11) 대표적으로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성기조, 「김구용의 시 <탈출>과 6·25의 실상」, 『시문학』, 시문학사, 1993. 홍신선, 「현실중압과 산문시의 지향 - 김구용 『시』 해설」, 솔, 2000. 자의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조연정, 「김구용 『시』에 나타난 자기(self) 실현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집, 2002. 홍순애, 「초월적 세계와 산문성의 시학 - 김구용론」, 『다층』, 2005 여름호 등이 있다.

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김구용 시에서 전쟁은 막연한 참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선적으로 장소의 파괴로 포착된다는 점이다. 그의 시에서 전쟁은 장소로 정확하게 가시화된다. 그리고 폐허가 된 장소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체적이고 강렬할수록 인간의 실존 의식도 파고를 겪는다. 장소란 주지하다시피 인간이 육체와 정신을 보존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근거지며, 이것이 파괴되면 장소와 온전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장소가 망가지면 인간도 온전할 수 없다.

> 커튼을 떨리는 손으로 걷는다. 도시가 들어찬 유리창에 전투기는 검은 배를 노박 드러내며 넘어간다. 안개를 흔드는 저승의 아우성 소리, 망령처럼 선 고층들은 소스라쳐 놀라, 눈마다 불을 껐다. 그도 불을 죽였다. 창이 먼 포 소리에 떨린다. 마음 속까지 진동한다. 닿으면 불이 활활 당길 듯, 해는 뱅그르르 돌며 첨탑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행길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어쩔줄을 몰라 들끓는다. 라디오는 이십세기의 비극을 고한다.
>
> -<유리창> 부분

> 폭격은 해협을 붉게 진동한다...하늘로 뻗은 손이 폭파된 지붕을 잡는다...윗부분은 날아가고 없었다. 내장을 뽑힌 건물들 속에서 쌓인 시체들이 성역(聖域)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그리하여 타버린 땅에 시가(市街)는 재건되었다...“전쟁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
> -<불협화음의 꽃II> 부분

> 잎들은 저리도 우거졌는데
> 집들은 하나하나 터만 남고
> 꽃들은 이리도 만발한데
> 송장들이 어디서나 썩는 냄새
>
> -<잎은 우거졌는데> 부분

인용 시들은 전쟁으로 인해 장소가 파괴되는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파괴가 현재적이거나 과거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거나 공통으로 무장소성을 결과하게 된다. 파괴로 인해 장소의 물리적, 정신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유리창>은 전투기가 날아다니며 폭격을 가하는 전쟁의 상황을 포착한 것이다. “고층” 건물들이 폭격에 흔들리고 “유리창”들이 “떨리”는 “도시”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도시의 건물들은 장소 고유의 안정의 토대가 아니라 폭격으로 인한 혼란의 장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서도 “어쩔줄을 몰라 들끓는다.” 파괴와 공포의 도가니가 된 도시는 장소의 역할을 떠맡을 수 없다.

<불협화음의 꽃II>와 <잎은 우거졌는데>는 전쟁이 지나간 뒤의 흔적을 보여준다. <불협화음의 꽃II>에서 “폭파된 지붕”과 “윗부분은 날아가고 없”는 “내장을 뽑힌 건물들”은 폭격을 맞아 파괴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장소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 건물들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 오직 “시체들”이 쌓여 있을 뿐이다. “타버린 땅”은 전쟁의 잔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잎은 우거졌는데> 역시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된 지역의 복구되지 못한 상태를 진술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잎들은 저리도 우거지”고, “꽃들은 이리도 만발한데” 아직도 땅은 재건되지 못한 것이다. 자연의 회복과는 대조적으로 “집들은 하나하나 터만 남고” 다 사라져 버린 상태다. 두 시에 등장하는 “시체”와 “송장”은, 이 세계를 삶이 아니라 죽음이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김구용의 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총알이 날아다니는 한복판에서 전쟁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 “폭파된 지붕”, “내장을 뽑힌 건물들”, “타버린 땅”, “집들은 하나하나 터만 남고” 등의 구절들은 전쟁이란 우선 장소를 폭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의 실존이 바로 위협당하는 계기임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당연시되기조차 하던 삶의 장소가 전쟁 속에서는 전무해지는 것이다. 장소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삶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쩔줄을 몰라 들끓는다”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의식의 강렬한 표출이다. 전쟁에 대한 김구용 특유의 실존의 위기와 중압감이 심도 있게 표현되는 것은 이와 같이 장소 파괴의 전면화를 통해서인 것이다.

> 목숨을 찾아 해안선까지 쫓겨왔다. 눈바람으로 울부짖는 집들은 폐선(廢船) 냄새가 났다. 파도를 남루로 가렸다. 폐벽(肺壁)은 무너지며, 지난날의 꽃잎들로 날았다. 어디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무덤들은 골목을 바다로 열었다. 찾아도 나는 없었다. 등불들이 곰팡난 육신들에서 깜박이었다. 이야말로 기적이었다.
>
> -<피난지> 전문

전쟁의 참화에 대해 묘사할 때 김구용의 시선이 미치는 지점은 이렇게 장소와 관련이 깊다. “집”은 거주할 수 없는 “폐선”이 되고 “어디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무덤들”이 되고 만다. “피난지”를 찾아 “해안선까지 쫓겨왔”지만, 이곳에서도 “피난”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전쟁은 생존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장소 상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나아가 장소가 없으므로 장소에 놓여야 하는 존재도 없다. 모든 삶과 인간의 의미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찾아도 나는 없었다”는 실존적 절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나는 없”다는 존재의 위기와 의식의 급박한 불안이 태동된다. 장소파괴와 무장소성이야말로 자의식의 혼란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2. 상품화된 성과 부조리한 장소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김구용의 표현대로 “기적”일 것이다. 그는 전쟁의 파괴뿐 아니라 전쟁 속에서의 “기적”에 가까운 생존의 모습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폐허의 잔해 위에서 생존하기 위한 온갖 투쟁이 시에 제시된다. 그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매춘이다. 김구용의 시

에는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매춘을 다룬 것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생존을 위한 호구지책으로 묘사된다. <벗은 노예>, <무상의 모태>, <그네의 미소>가 매춘을 전체적으로 다룬 것이라면, 장시 <소인>, <불협화음의 꽃II>에는 매춘이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매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매춘이 평범한 가정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 그것은 가정 안이었다...벽 너머 바깥에서 어린 것이 엄마를 부른다. 우는 소리가 들리었다. 빈상(貧相)으로 생긴 여자는 그가 벽인 줄만 알았던 문을 열었다. 길바닥에서 넝마를 입은 어린 것이 벌벌 떨며 들어와 눈치를 살금살금 보았다.
>
> -<벗은 노예> 부분

> 피난 당시 항도에서 한 부인은 매음으로 한동안 병든 남편과 어린 것을 부양하였다. 그들 부부만이 아는 순금의 비밀이었다. 일선에서는 송장들을 넘으며 전투가 불로 뒤덮였다. 남편은 어린 것의 손을 잡고 밤골목에 서 있었다. 남편은 방에서 손님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 불빛은 판자 틈 사이로 꺼진다. 가슴은 그럴 때마다 깜깜하였다. 분노와 비애는 꺼졌다. 아내는 바로 그의 생존이었다.
>
> -<불협화음의 꽃II> 부분

위의 두 시 모두 매춘의 장소가 일반 가정집이다. 매춘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집에서 매춘을 한다. <벗은 노예>에서는 “어린 것”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불협화음의 꽃II>에서는 “병든 남편과 어린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집에서 매춘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벽인 줄만 알았던 문”을 여니 밖에는 “어린 것이 벌벌 떨며” 기다리고, 매춘이 끝나기를, 즉 “남편은 방에서 손님이 나올 때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 부분이 충격적 묘사로 다가오는 것은 매춘과 생활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분명하게 보

여주기 때문이다.

두 시 모두 전쟁 속에서 삶의 근거지인 집이 매춘의 장소가 되는 적나라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춘의 침범은 가정이 장소가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장소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삶의 내용들을 부정하게 만든다. 가정이나 집은 장소가 아니라 반장소가 되어 버린다. 부조리한 장소로서의 집, 여기서의 인간의 경험은 왜곡되고 소외된 것일 수밖에 없다.

김구용의 시에는 집 외에도 매춘이 행해지는 곳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요리집”이나 “다방”과 같이 암묵적인 매춘의 장소뿐 아니라 “뒷골목”(<벗은 노예>), “다리 밑”(<무상의 모태>) 등 매춘은 어느 곳에서고 발생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이미 장소로서의 기능이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성을 사고파는 곳으로 전락한다. 장소 나름의 고유성을 잃고 매춘과 타락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이미 동질화된 것이다.

이처럼 김구용 시에서 매춘은 장소적 의미로 접근해야한다는 것, 가정집뿐 아니라 많은 장소가 매춘으로 뒤덮여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매춘을 부조리한 장소로서의 장소 상실로 이해해야 의미가 뚜렷해지는 것이다. 매춘으로 인한 장소의 타락, 훼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장소의 고유성, 의미성을 침범함으로써 인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할 수도 없게 한다는 점이다. 장소의 오염은 불가피하게 인간과 삶을 왜곡시킨다. 의식의 모멸과 파행이 뒤를 잇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가슴은 그럴 때다 깜깜하였다”와 같은 구절은 반장소 경험이 초래하는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경험이야말로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의식이 배태되는 조건이라 할 것이다.

3. 획일화된 도시와 장소 상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구용 시에서 전쟁은 장소의 파괴나 장소의 오염을 통해서 장소 상실을 야기한다. 그러나 장소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이 또 있다. 전쟁 후의 재건이 그것이다. 전쟁 후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개발과 이에 따르는 도시화는 장소성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거리의 고층 빌딩은 정서적 소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압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이다. 인간은 도시 속에 담겨 있기보다는 도시를 정처 없이 떠돌면서 괴리를 느낀다. 김구용의 시는 이러한 모습을 또렷하게 포착하면서 현대적 불안과 소외감을 환기하고 있다.

> 도시는 한낱 인조품이었다. 차는 전망창에 생물처럼 천천히 기어드는 길을 거두어들인다...자동차가 교통을 벗어나려 해저 같은 빌딩 협곡을 흘러간다...먼 곳에서 걸어온 청년은 서적들로 층층이 쌓인 현대건물의 좁은 가로를 지나다가 피곤한지 가끔 걸음을 멈춘다...교외의 공장은 창이 없었다...지난날은 다방에서, 셋방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대중식당에서, 어디에서 돌아보아도 섬이었다. 구하고 버림을 당한 곳이었다...도시는 강간과 싸움과 수갑과 병을 대가로 공급받았다. 계단은 검문으로 통하였다...통행금지된 백주의 길거리는 눈이 내린다.
>
> -<불협화음의 꽃II> 부분

> 나는 걸을 때 과일집, 이발관, 구두점, 극장, 다방, 은행, 골동상, 포목전, 고깃간, 악기점, 요리집, 책집, 백화점, 운동기구점, 인쇄소, 관공서, 신문사, 이러한 연속에서 혹란(惑亂)한다. 생각은 직업에 부침하는 군중들로 휩쓸린다. 공간에 꾸겨지는 호흡이 무겁다. 건물과 불빛 사이의 현상은 주의할 단 하나의 진행 방법이다. 그러한 사이를 가노라면 나의 그림자는 건물들의 종면(縱面)에 혹은 광고지에 금세 거목(巨木)으로 자라나고, 어떤 각도에서는 고무줄처럼 늘어나 목이 꺾여진 채 끊어질 듯이 소리를 낸다.
>
> -<피곤> 부분

인용한 시들은 모두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떠도는 불안정한 존재들을 보여준다. <불협화음의 꽃II>에서 “도시는 한낱 인조품이었다”는 구문은 도시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단언한다. “공장

은 창이 없”고, “계단은 검문으로 통”할 뿐이다. 도시는 “해저 같은 빌딩 협곡”이나 “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곤>에서 각양의 셀 수도 없이 많은 간판과 상점들로 묘사된다. 이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건물은 “혹란”을 느끼게 할 뿐이다.

김구용은 “네온의 망령/사람 없는 도시”(<아리랑 Ⅲ>), “망령처럼 늘어선 고층들”(<유리창>)이라는 표현을 통해 도시를 사람다움을 실현할 수 없는 망령의 공간으로 묘사한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건물들은 기계적인 획일화를 보여줄 뿐 사람들이 장소에서 체험해야 할 내용들을 불가능하게 한다. “행인들은 그 속에서 건물들 사이로 환상 마냥 헤엄치고 있었다”(<소인>)는 것은 문명화된 도시의 건축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의 시가지는 한 마디로 장소성을 실현할 수 없는 곳이다.

중요한 것은 50년대에 씌어진 김구용의 시들이 이 지점에서 현대적 감각을 선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 도시는 장소 없는 주체들이 혼란스럽게 출몰하는 곳이다. 그들은 장소성이 제공해주는 어떠한 실체감도 갖지 못한 채 “환상 마냥 헤엄치고 있”거나, “고무줄처럼 늘어나 목이 꺾여진 채 끊어질 듯이 소리를 내”는 위기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 위기의식은 비극적인 실존의식을 싹틔우고 자아의 천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요컨대 문명화된 도시에서 장소 상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적 주체의 복잡한 내면 의식은 김구용 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공간과의 일치, 유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방황을 거듭하는 이들은 깊은 회의에 빠져 폐쇄적 자의식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소인>이나 <꿈의 이상>과 같은 장시에서는 대표적 비장소인 감옥이나 병원을 전전하며 의식의 분열을 보여주거나 불합리한 운명에 체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주체의 삶이나 의식을 보전하지 못하며, 주체가 수금의식이나 도피의식 같은 파행적인 자의식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4.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무장소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장소의 일시성이다. 장소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장소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의 활동과 의미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빈번히 교체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소가 일시적일 때는 특유의 장소성을 산출할 수가 없다.

김구용 시에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장소가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 우선 40페이지에 달하는 장시<소인>과 <꿈의 이상>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모두 하숙을 하고 있다. 하숙은 진정한 집이 아니며 일시적 거주에 속한다. <소인>의 "나"는 "관 속 같은 나의 하숙방"이 싫어 매춘부 애인을 자주 찾아가는가 하면, "녹빛 외투의 여인"에게는 "하숙집 주소를 알려 주기는 싫어" 유령회사와 다를 바 없는 "동양 무역 주식회사"를 일러준다. 거주처와 직장 모두가 "나"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불안정의 상징일 뿐이다. <꿈의 이상>의 "그"는 "하숙방은 근 이천년 전 마구간보다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보건대 하숙은 안정과 정착이 아니라 탈장소를 야기한다.

<불협화음의 꽃 II>에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다.

> 황량한 안면이 해바라기 이우는 공사장과 맞쳐다본다...그는 명절날 셋방에서 중국만두를 씹는다... 그는 지친 걸음으로 셋방에 돌어와서 전등을 밝혔다...밤 너머 이국땅은 어느 술집이었다. 승객들은 제각기 생각에 결박되어 있었다. 열차는 달리고 있는 것이다...미혼모들은 공항에서 혼혈아에게 마지막 손을 흔들었다...지난날 그에게서 배운 제자가 오랜만에 다방으로 찾아왔다...양주점들만 들어서 있는 골목과 저편 판장들이 다방 창에서 내다보는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로오타리를 돌아나가

는 초만원 버스 안에서 혹 늦지 않았나 하고 그는 앞 직업 여성의 어깨 위로 간신히 팔을 들어보았다...운전사는 빈 택시를 몰고 거리를 달린다... 열대어는 접대부 방에서 서정을 그린다. 고국을 잃은 잉꼬새는 독신자의 셋방에서 알을 깠다...빌딩 내부를 밟고 올라가던 발은 복도의 정치과라는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정치과인지 정치과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힘이 되어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쥐는 그의 셋방을 노려본다.

-<불협화음의 꽃 Ⅱ> 부분

위의 시를 살펴보면 일시성으로 인한 무장소성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숙에 버금가는 "셋방"은 3회나 나오고, "공사장", "술집", "공항", "다방", "양주점", "골목", "로오타리", "접대부 방", "정치과", "계단" 등이 모두 잠시 들르거나 스쳐 가는 곳으로 묘사된다. 일회적인 이러한 장소들은 김구용의 시에 언제나 순간 순간 출연하며 사라진다. 이러한 장소들을 통과하는 주체는 거의 기계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어떠한 실존성이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장소의 일시성을 부추기는 것으로 교통수단이 있다. 교통수단과 교통커뮤니케이션은 무장소성을 촉진한다.[12] 김구용의 시에는 교통수단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위의 시에서도 "열차", "버스", "택시"가 모두 나오는가 하면, "초만원 버스"뿐 아니라 "초만원 전차"(<오늘>)도 즐겨 나타난다. <소인>의 "나"가 문제의 "녹빛 외투 여인"을 우연히 만나 표를 대신 내주고 결국 여인의 살해범으로 몰리게 되는 계기도 "전차"로 인해서이다. "전차"는 우연과 오해가 얽혀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는 부조리를 잉태하는 곳이다. 김구용 시의 부조리는 바로 이 일시적 장소와 일시적 관계들이 얽혀 빚어낸 것이다.

---

12) 렐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길, 철도, 공항은 경관과 함께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관을 위압하고 가로질러서 경관을 토막 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장소성의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통수단은 다양한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 무장소성의 확산을 조장한다.", Relph, 앞의 책, 198쪽.

김구용 시는 이렇게 장소의 일시성과 부조리성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상황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통수단이나, 일시적 체류지, 하숙과 같은 거주 형태가 야기하는 장소의 일시성은 그만큼 주체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일시적인 장소는 존재의 일시성으로 대리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주체를 창출한다. 그것은 진정한 장소성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며, 안정된 주체의식이 아니라 김구용 시 특유의 흔들리고 위태로운 내면 의식을 초래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의 시 속의 도시는 이렇게 획일화된 문명적 속성과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으로서의 장소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러한 장소와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분열과 소외와 불안의 주체들이 출몰하는 곳이다. 이 주체들은 50년대라는 당대적 의미를 넘어서 현대적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소의 상실, 탈장소, 무장소성등 장소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비합리, 모순, 부조리와 같은 현대의 전형적인 징후들을 형성하게 되는 까닭이다. 장소의 상실은 이러한 징후들을 복잡하게 내면화한 김구용 시의 주체들을 낳았다고 할 것이다.

Ⅳ. 맺음말

50년대에 주로 쓰여진 김구용의『시』의 세계는 전쟁과 이로 인한 가난, 매춘 등의 비극적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자의식이나 내면 세계로의 침잠 등이 또 다른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은 현실과 내면 의식이라는 김구용 시의 두 동기를 무장소성을 통해 이해하고 연계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전쟁과 현실의 질곡을 구체적으로 장소의 상실을 통해 들여다보고 이를 의식의 위기를 초래하는 하나의 계기로 파악하려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소란 단지 인간의 삶의 배경이 아니며 삶의 터전이라

는 점에서, 또한 인간이 의미 있는 관련을 맺는 곳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실존의 위기로 이어지며, 불안하고 분열적인 자의식으로 결과하게 된다. 자신이 근거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에 대한 실제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황하고 갈등하는 현대적 주체의 자의식으로 연계된다.

김구용의 시집『시』는 장소상실, 반장소, 부조리한 장소, 탈장소, 일시적 장소 등으로 포괄된 무장소성과 이에 의한 실존의식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이를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전쟁이 유의미한 삶의 지표들을 보전하는 장소를 붕괴시켜 삶의 장소를 사라지게 하는 장소 파괴, 그리고 장소 파괴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해 상시화된 매춘이 가정집이나 거리등을 침범하는 장소의 부조리성, 또한 전쟁 후에 재건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획일적인 도시 공간으로 인한 장소의 상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 등의 일시적인 장소의 불안정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장소적 결함은 50년대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의 파괴와 혼란과 부조리한 삶의 과정들을 현저하게 담고 있는 김구용 시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무장소성이라는 관점에 입안해서 그의 시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에게 무장소성은 단지 장소나 장소성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소외와 분열이라는 실존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유효한 지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구용, 전집 1권『시』, 2권『구곡』, 3권『송백팔』, 4권『구거』, 솔출판사, 2000.

김양희,「김구용 시 연구-1950년대 시를 중심으로」,『한국시학연구』25집, 한국시학회, 2009.8, 195-226쪽.

_____,「김구용 시의 환상성 연구 - <소인消印>(1957) 연구」,『한국언어문화』5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3.12, 29-55쪽.

민명자,「김구용의 산문시 고찰」,『어문연구』49집, 어문연구회, 2005.12, 329-360쪽.

_____,「김구용 시 연구-시의 유형과 상상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2007.

_____,「김구용 시의 개작과정 연구」,『인문학연구』36권1호, 인문과학연구소, 2009.4, 7-38쪽.

_____,「김구용 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李箱 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인문학연구』37권1호, 인문과학연구소, 2010.4, 29-61쪽.

박동숙,「金丘庸의 텍스트 <消印>에 생성된 욕망의 系列化 양상」,『어문연구』39권1호, 어문연구회, 2011.3, 363-387쪽.

박선영,「김구용 시의 입체성」,『비평문학』18집, 한국비평문학회, 2004.6, 175-199쪽.

_____,「김구용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5.

_____,「김구용 시에 나타난 근대 공간성 연구 — 시집『시(詩)』를 중심으로」,『아시아문화연구』29집,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3, 123-134쪽.

박찬일,「서로 다른 것의 공존, 혹은 분열 - 김구용의 <반수신의 독백>을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19집, 인문과학연구소, 2008.6, 3-29쪽.

성기조, 「김구용의 시 <탈출>과 6·25의 실상」, 『시문학』, 시문학사, 1993.

송명희, 「이상화 시의 장소와 장소 상실」, 『한국시학연구』23집, 한국시학회, 2008.12, 219-240쪽.

_____, 「김광섭 후기 시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와 생태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32집, 한국시학회, 2011.12, 65-86쪽.

송승환, 「김구용 산문시 연구 1- <소인(消印)>(1957)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2집, 중앙어문학회, 2012.12, 361-384쪽.

유정이, 「한국전후 모더니즘 시 연구-신동문, 전봉건, 김구용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8.

이수명, 「김구용 전쟁시에서의 절대적 타자」,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1권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12, 225-248쪽.

_____, 「김구용의 <소인(消印)>에 나타난 수금의식(囚禁意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7권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3, 141-159쪽.

_____, 「김구용의 <꿈의 이상(理想)>에 나타난 불교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권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12, 101-118쪽.

이숙예, 「김구용 시 연구-타자와 주체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7.

장인수, 「한국초현실주의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6.

_____, 「일기를 통해 본 김구용 문학의 형성 과정」, 『반교어문연구』 35집, 반교어문학회, 2013.8, 289-316쪽.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의 등장」, 『비교문화연구』 19권1호, 비교문화연구소, 2013, 114쪽.

조연정, 「김구용 『시』에 나타난 자기(self) 실현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홍순애, 「초월적 세계와 산문성의 시학 - 김구용론」, 『다층』, 2005 여름호, 2005.6.

홍신선, 「현실중압과 산문시의 지향 - 김구용 『시』 해설」, 솔, 2000.

Augé, Marc(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by J. Howe, London & New York: Verso. (정헌목(2013) 111쪽에서 재인용)

Lefebvre, Henri(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1쪽.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14쪽, 182쪽, 198쪽.

Tuan, Yi-Fu(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정영철 옮김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 1995, 10-11쪽, 92쪽.

<Abstract>

A Study of the Placelessness in Kim Kuyong's Poetry

Lee, Su-myeong

This study is analyzing Kim Kuyong's poems with the concept of the 'place/placelessness' which has been developed by geographic academics since 1970s. The "place" is only possible and different from the undefined space on the condition that some extent familiarities and emotional ties exis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made the traditional placeness increasingly impossible and made a way to placelessness, in which the place hardly functions. Kim Kuyong's prose poems presuppose kinds of narrative spaces, most of which are understood having the placelessnes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placen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ur aspects of the placelessness in Kim Kuyong: the destruction of the places by the war, the deformation of the place to the level of absurdity by the commercialization of sex, the feeling of placelessness triggered by the standardization of urban landscapes, and the ephemeral and unstable nature of traffic spots. The placelessness in Kim Kuyong is understood seminal for the elucidation of the otherness of modern life.

Key Words : Kim Kuyong, space, place, placeness, place identity, placelessness, destruction of place, standardization of

urban landscape, loss of place.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5일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